

공동체 소식

☐ 목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목주기도를 매일 바쳐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기억합시다.

☐ 이민자의 날 미사

- 이민자의 날 미사에 참례하시고 한국음식 나눔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19 Convocation (교구대회)

- 2박 3일동안 교구대회에 참가하신 본당대표단에 감사드립니다.

☐ 낙태 반대 서명운동

- 본당입구 게시판에 준비된 카드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 구역모임 안내

- * 2구역 : **11(금) 7시**, 김정원 베드로 가정 7420 W 99th st, OP KS
- * 1구역 : **12(토) 7시**, 조지연 마리아 가정 9735 Reeder st, OP KS
- * 구역반장 회의 : **13일(일) 1시** 나자렛 교육관

☐ 주일학교 안내

- **매주일 오전 10시 나자렛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 주일학교 자리는 해설대 쪽 앞 1열~4열까지입니다.
- 목주기도 성월을 맞아 목주기도를 배웁시다.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성당(한인/미국)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제대 앞을 지나갈때는 깊은 절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461	213	170	62
차 주	31	54	168	44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세실리아)	박태주(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차 주	김명은(안젤라)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지안(요한) 김정훈(로베르토)
차 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정빈(바오로) 김정원(안젤라)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우영(가브리엘), 김동술(요한)
차 주	홍순익(마르티노), 차상욱(펠릭스)

☐ 애찬 봉사자

금 주	5조: 김말자, 박계숙, 유계화, 김수연
차 주	6조: 문문주, 장유정, 김희진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10월 2구역)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눴을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8월 25일)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이며 군인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보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우리가 쓸모없는 종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그림 묵상

그때에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루카 17, 5-6

제 1 독 서 : 하바쿱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2-3; 2,2-4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화 답 송 :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1,6-8.13-14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환호송 :

-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5-10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생명의 말씀 성실과 겸손으로 빛이 되는 신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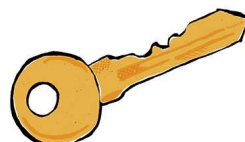
중세 시대에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 건립될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까마득히 높은 종탑 꼭대기에서 조각가 한 사람이 돌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에 꽃잎 하나하나를 아주 정성껏 열심히 조각했습니다. 하루는 동료 한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게, 무얼 그리 열심히 조각하고 있나? 저 밑을 내려다보게, 사람이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데, 누가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겠나? 대충해 두게나." 그러나 조각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밑에서 누군가가 보아주기를 바라지 않네. 내가 열심히 조각한 이 작품을 보아주실 분은 바로 저 위에 계신다네."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는 이들 중에서 사제와 주교는 올바른 가르침과 모범으로 신자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품성사로 축성된 사람으로서, 성사로 주어진 하느님의 은사,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에 의지해서 용감하게, 고난마저 감수하면서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제2독서). 하느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용감하고 굳세야 합니다. 성품 받은 봉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신앙인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입니다. 하느님께서 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가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하느님과 반대되는 세력들, 억압과 폭력, 싸움이 판을 치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함을 유지합니다(제1독서).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참된 신앙인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무슨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느님 은총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십니다(필리 2,13).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나서도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압니다(복음).

다른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런데, 이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열쇠입니다.

문을 열고자 한다면 열쇠를 찾아야지요.

다른 걸 찾는다면 헛수고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루카 17,5)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차라리'와 '그래도'

후배 하나를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도 따라왔지요. 우리는 "좋은 저녁이야"를 연발하며 분위기 좋게 시작했습니다. 후배가 두 잔의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가 길어지더니 별똥 일어나고 싶을 정도로 지루하게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시간은 좋은 대화가 핵심입니다. 좋은 시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을 잇는 연결고리 중 '차라리'는 여러 차례 한숨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차라리 돌아서고 말지!', '차라리 헤어지고 말지!' 등 인내를 시험하듯 '차라리'라는 말은 절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밥 먹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라리'를 '그래도'로 바꿔봐. 네 기분이 변하고, 생각도, 행동도, 지금 이야기도 조금 변화되지 않겠니? 너 힘든 거 알지만 차라리(里)보다 그래도(島)가 좀 경치가 좋을 것 같지 않아?" 후배가 너무 영뚱했는지 강의하냐고 대뜸 얼굴을 치켜들다가 이내 고개를 숙입니다.

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

저도 늘 '~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를 연발하긴 했지만, 결국 제가 생의 가장 빛나는 도시를 찾은 건 '그래도'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출발점이며 발견입니다. 언제나 희망의 공간입니다. 생은 높이 뛰기였고 장애물 넘어서기이며 도전의 이름으로 땅을 넓히는 멀리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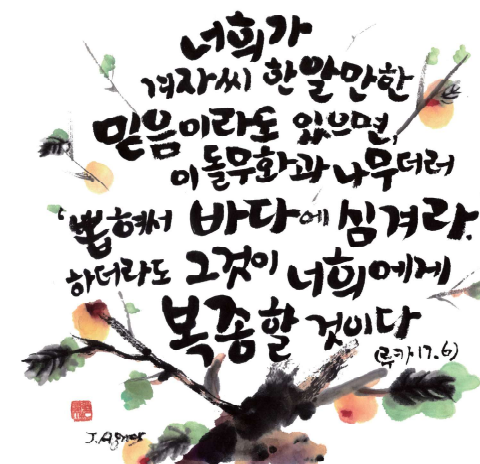
저는 후배에게 다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배의 도발적인 말과 행동 아래 깔려있는 불쌍한 욕구를 제가 읽어 내지 못한 것 같아 선배로서 미안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우리는 침묵했고, 서로가 자신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절반 남은 밥은 웃으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정신이 약해지는 것인지 젊은 시절의 고통들이 불끈 일어서서 절 숨 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발끝에 힘을 주면서 스스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둔감하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책을 듣거나, 대화가 되지 않아 좌절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신력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위안이며,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기에 말입니다. 저는 다시 감사합니다. '차라리'의 강에서 '그래도'의 강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저의 기도의 힘임을 알고 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요즘 제가 너무 우울해서요." 후배가 말하는 '차라리'를 너무 잘 알고, 너무나 많이 건너온 강이기에 저도 밥 먹다가 신경이 곤두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건너온 강은 '그래도'입니다. 내가 수천 번도 넘은 강이고 또한 누구나 건너오고 건너가고 있는 강입니다. 김승희 시인이 "그래도라는 섬에 살고 싶다"라는 시에서 '그래도'의 의미를 너무 잘 그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

신달자 엘리사벳 | 시인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정승원 아녜스